

5

가정예배 · 구역예배

충현의 만나 2009

가정예배 시편 · 사도행전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5

2009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시편 · 사도행전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 ①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 ③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 주소서.
- ④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천국일꾼이 양성(딤후 4:6)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딤후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교회주변과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⑥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행 1: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벧전 2:9)가 되게 하소서.
- ⑦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⑧ 총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 ⑨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보혜사 성령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성령님의 능력과 임재를 회복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해지고
그분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살 수 있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매우 놀랍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역사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십자가를 전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십니다.
세상의 것들에 미혹당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009년 5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본문을 봉독

가정예배

(매일성경묵상)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39)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그 거룩하신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1~3절). 다윗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크신 권능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과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에 대한 확신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합니다. 과거의 승리를 돌아보며 오늘의 승리를 확신하고, 내일의 승리를 기도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터운 믿음의 실재를 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공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반드시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골 2:15).

진실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크셔서 그 영광이 온 세계에 높이 들립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위기와 심지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1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의지하여야 합니다(딤후 1:12). 승리를 위한 준비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13절).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도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신 주님을 순간순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시 108:13)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② 천천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행사는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은혜와 공훈을 베풀어 주셔서 죄악을 회개하며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은총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아픔을 겪어 보셨습니까? 대적자들의 악행과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시인의 탄원과 저주는 그가 받았던 고난의 정도를 미루어 짐작하게 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4절).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롬 12:12)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인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개인적인 고난과 악행에 대한 분노와 증오의 표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세우신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들의 결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주가...들어갔나이다”(18절), “수치를 겉옷 같이 입게 하소서”(29절)와 같은 저주는 그 많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받을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다시 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와 공훈로 구원을 얻었고 곧고다 언덕 높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두 세계에 살면서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시 109:31)

기도 제목 ① 매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원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2절)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메시아의 통치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요일 4:12). 하나님이 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예언자요 제사장인 그분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그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3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까지 모든 믿는 자들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무도 그 거룩하신 직분을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본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그 보좌에 앉은 제사장”(속 6:13)이 되셨습니다.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원수들을 물리치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마침내 대적들의 잔악하고 맹렬한 죄악을 따라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6절).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여야 합니다. 주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부활의 영광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오늘날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시 110:4)

기도 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한 성찬식이 되게 하시고 가족연합예배를 통하여 총현의 모든 가정이 복음 위에 굳게 세워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송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1절). 저천 세파에 시달려 지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김으로써 영원한 천국 소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섬길 주님이십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힘겹게 지고 고통을 당할 때에도 밤 같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십니다(5절).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은 우리의 구원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과의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존귀하심과 엄위하심을 목격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확실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딤후 3:4).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공의로 자신의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영원히 지속하십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을 따라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십니다(사 65:17~25).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임을 알고 참 믿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영원히 찬송합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시 111:4)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천천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십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관심과 넘치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은 환난을 당하지만 의인은 최후에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의인들은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되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요한 자가 됩니다(약 2:5).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상급을 물질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2~3절) 이것은 궁극적으로 얻게 될 영원한 하늘상급에 대한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속한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 귀를 기울이며 자비로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의를 행하여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질과 명예에 마음을 빼앗겨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9절).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깨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영적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벧전 3:12).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 112:1)

기도 제목 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온 우주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존귀하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평생에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있기에 즐거움으로 찬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자비에 대해 감사하며 그분의 지고하신 영광과 권세를 높이 드러내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은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겸비하신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의 문제를 돌아보시고 마침내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6~7절). 자비하심으로 땅을 충만케 하시며 인내로서 모범을 보여 사랑과 용서의 삶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감찰하셔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높이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왕이신 그분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최고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의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시 113:2)

기도 제목 ①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찬송하며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②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 하에서 벗어나 출애굽한 사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때 유다는 여호와와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음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2절). 유다와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성소가 되고 여호와와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실 때 자연만물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고 그분 앞에 순복하고 떨게 됩니다(3~5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러 정착하기까지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으며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며 인도하셨습니다(3~8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시대의 신자들에게도 임마누엘이 되시어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23).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주님께서 삶을 인도하시도록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유다는 여호와와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시 114:2)

기도 제목 ①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② 우리 교회를 시온성과 같은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1절).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의 관심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신자들의 모든 일의 중심이 되셔야 하며, 우리 신자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과 식물의 관계와 같습니다. 식물이 살려면 언제나 빛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일의 중심이 되셔야 그 일들이 의미가 있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자주 허탄한 우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고전 12:2). 우리는 우상이 은과 금으로 만들어졌을 뿐이고 그것들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4~8절). 무엇이 우상입니까? 그것이 재물이든 자녀이든 무엇이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참된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우상의 허탄함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0:28). 오늘 하루도 매순간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 들이고, 그분의 인도 가운데 한 걸음씩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시 115:15)

기도 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생명이 위협받는 극한 위기로부터 구원받은 한 사람의 기쁨과 감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1~5절).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신 것에 감사하여 감사제를 드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17절). 여호와 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이전의 시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3절). 그는 자신을 둘러싼 심각한 위협 가운데 여호와 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8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시인처럼 커다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인처럼 여호와 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민 20:16). 이렇게 돌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요 14:13~14). 닫혀있는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를 구주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우리는 겸손함에서 나오는 심령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시 116:1)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겸손히 기도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행 1: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행전 2:9)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시편 전체에서 가장 짧은 뿐 아니라, 성경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장을 통하여 시인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속적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함축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라 할렐루야”(2절). 그와 동시에 모든 민족과 백성들도 이 찬양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할지어다”(1절). 이 시는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시어 언약을 체결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연상시킵니다. “...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출 34:6).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인간 이해의 한계를 뛰어 넘습니다. 자신의 백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20).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며 천국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할 때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라 할렐루야”(시 117:2)

기도 제목 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인자와 진실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각 교회학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천국 일꾼을 양성(딤후 4:6)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시련 중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게 된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었던 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11~14절).

우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인도 사람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벌과 같이 에워싸임을 받았으며(11~12절), 밀쳐 넘어짐을 당하였습니다(13절). 또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사람들의 눈 밖에 나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로 낙인찍히고 만았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사람들에게 이런 괴모움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8절).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쓸모없어 버려진 돌과 같은 그를 들어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22절)라는 내용은 단순한 시인의 경험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분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요일 2:2).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부의미하게 여기고 있으나 그분은 집을 세움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시 118:22)

기도 제목 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자신과 가정의 머릿돌이 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 교훈시로서 특히 말씀에 대한 시인의 진지한 자세와 말씀의 본질 및 기능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총 176절 가운데 네 절(84, 121, 122, 132절)을 제외한 모든 절에서 말씀·율법·증거·법도·율례·계명·판단·규례·도와 같은 말씀을 가리키는 동의어들이 반복됩니다. 이 시편의 구조는 8절을 한 단위로 하여 각 절의 첫 단어가 동일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7).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즐거워하다’(9회), ‘사랑하다’(11회), ‘지키다’(20회), ‘묵상하다’(8회), ‘기뻐하다’(3회), ‘사모하다’(2회). 이와 같이 말씀을 안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기뻐하며 영혼에 깊은 깨달음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삶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103절). 날이 밝기 전에 말씀을 읽기 위해 눈을 뜨게 되는 열심을 갖게 됩니다(147절).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시 119:18)

기도 제목 ① 십자가 복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복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하소서.
②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선교의 방관자가 없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시입니다. 시인은 이전에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구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1절). 시인이 간구했던 기도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공동체 내에서 인간관계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3~7절).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시인은(2~3절) 그 위협을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잘 꺼지지 않는 뜨거운 로뎀 나무 숯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4~5절). 시인이 자신을 해하려는 자와 화평을 시도했지만 그러한 시도는 허사가 되고 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시인을 해하고자 하는 자는 더욱 사나운 기세로 싸우고자 달려듭니다(6~7절).

혹시 시인처럼 인간관계로 인하여 고통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도와는 상관없이 험뜯고 조롱하며 악한 말로 곤경에 빠뜨리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면 혹시 자신이 가해자의 입장에 서서 타인을 정죄하고 비방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 보복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고통을 아뢰 때(엡 2:13~15) 주께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시 140:12).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낙담하지 마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화평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엡 2:16~17).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시 120:7)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교회주변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닦쳐온 어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결코 염려하지는 말아야 합니다(마 6:25~34).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시인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한 후(1~2절), 1인칭인 ‘나’에서 2인칭인 ‘너’로 바꾸어서 자신의 체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3~8절).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육신의 발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더 험한 인생길의 시련과 역경으로부터 성도들의 발을 실족하지 않게 지켜 주십니다(3절). 시인처럼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도움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운 상황을 아뢰어 주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 121:2)

기도 제목 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가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거듭나 십자가의 은총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번영할 때나 압제 받을 때나, 오직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1~2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간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마 21:13).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비로소 성전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죄인들을 향한 죄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십자가 보혈의 피로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는 선언이 동반되어야 합니다(요일 1:9).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행 20:28). 그러기에 세상의 모든 자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교회로 모여 주님께 경배하길 원하십니다(요 4:23). 우리의 예배가 철저히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4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몸 된 교회가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주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시 122:9)

기도 제목 ①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복을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민음의 시작은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1절). 그것은 마치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섬김의 눈과 같습니다(2절). 그렇다면 주님의 종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공활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공활을 구해야만 합니다(3절). 그렇다면 주님께 구하는 공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 속으로 친히 들어오시어 주님의 구속 계획이 우리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 우리들을 조소하고 멸시합니다(4절).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은 선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벧전 2:9).

주님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녀들을 향하여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라면 그분이 주시는 참 자유를 맛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만약 주님의 종이 된 상태를 압제라고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가 된 것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합니다(마 25:21).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시 123:1)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② 남전도회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총력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거듭남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에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따릅니다. 그것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마귀의 위협이나 엄청난 해일이 우리를 쓸어버릴 기세로 달려드는 것과 같습니다(3~4절).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위험한 순간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올무가 찢어지고 새가 날아가듯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7절).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6절)라고 세상을 향하여 찬송하는 백성들입니다.

이 시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닥치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도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전사로서 죄의 추악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딤후 4:7). 그러기에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움이시며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8절). 세상의 이해나 격려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사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시 124:8)

기도 제목 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② 교사 양성부 및 찬양대원 양성부 과정을 통하여 보혈로 충만한 십자가의 정병들이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힘겹고 어려운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십자가 그늘아래에서 평안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산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 가장 안전한 성읍입니다(1~2절).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늘 함께 계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항상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기 때문입니다(요일 2:15).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은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흔들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험난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벧전 1:5).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갑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시 125:1)

기도 제목 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포로생활로 지쳐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자 그들은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1절).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찢다고 합니다(2절). 열방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합니다(3절). 우리가 바로 이 포로들은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셔서 값없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고백처럼 구원의 감격과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삶 속에서 점점 열려지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5~6절을 보면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생활을 하면서도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매일 씨를 뿌리지만 어떤 이는 노예의 신분으로 씨를 뿌리고, 또 다른 이는 자유인으로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둡니다. 바로 육으로 심는 자는 썩어질 육의 열매를 거두고 영으로 심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거둔다는 말씀입니다(갈 6:8).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육의 씨를 뿌리지도 그 열매를 거두지도 말아야 합니다(롬 8:12~14). 그러기 위해서는 매순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 126:5)

기도 제목 ① 영으로 심어 생명과 평안을 거두는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② 선교사들이 각 나라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여도 모든 결과는 허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설령 자신의 수고로 집을 세우게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성을 지키고, 수고한 대가로 떡을 먹고 자식을 낳아도, 또 많은 자녀가 있어도 인생의 모든 것들은 늘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제공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기 때문입니다(전 12:8).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호와 그분이 집을 세워주시고 성을 지켜주시면(1절), 그곳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안전지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엘리사가 머무는 성을 포위하였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제하시는 절망에 빠졌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게 하시어 자신들을 보호하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왕하 6:14~17).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쥐고 좌지우지하면서 최상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철수록 우리는 더욱 세상의 율무에 걸리고 말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여했습니다(엡 3:17~19). 매순간 주님이 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의 소망이신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시 127:1)

기도 제목 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게 하소서. ② 수요성경공부를 통하여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1절). 우리는 흔히 복이란 인생의 자랑으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 할만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3절에서 나타난 문자 그대로 수고한 것을 먹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를 얻는 것,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이 있고 그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이러한 복들은 세상에서의 잠깐의 즐거움을 주기 위한 복이지 결코 영원한 복은 아닙니다. 본문의 복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 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5절). 5절의 시온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은 시온산 위에 서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늘 평강이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에 대해 감사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풍족한 상황, 혹은 세상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의 탈출이 복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참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십시오.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복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므로 현재 주어진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얻게 됩니다(6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십니다(롬 16:20).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진정한 참된 복의 시작이요 마지막이며 전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시 128:1)

기도 제목 ①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② 1·1·1 전도(딤후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3차 전도여행의 핵심인 에베소에서 바울은 약 3년간을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바울의 생애 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 기간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이 기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강론하는 일에 주력하면서도 친히 자기의 양식을 위해 일했습니다. 또 그는 서신서를 집필하기도 하였습니다(고전 5:9~10). 그러나 바울은 이미 이룬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복음을 전할 소망에 불타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나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지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행 19:21).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역에 있어서 자신이 이룬 업적에 머물러 있거나 자기만족에 빠지지 않았습니다(딤후 4:7~8). 자신이 행한 믿음의 일들에 스스로 만족하며 그 가운데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으며 커다란 선교적인 성공을 거두는 시점에서도 로마를 생각하며 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열망하였습니다. 로마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결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 전하기를 열망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을 향한 순수한 열심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행 19:4)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의지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예배와 집회를 수증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헌신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3년 동안의 에베소 전도를 끝낸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후 드로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고 난 후(4~12절) 밀레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설교를 하였습니다. 고별사 성격을 띤 이 설교는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의 성과와 향후 계획 및 부탁의 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바울은 주로 이방 유대공동체를 대상으로 설교와 변증을 하였습니다(13:16~41). 그러나 여기서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담담한 자기 고백과 신앙적 결의가 돋보이며 고난의 길을 겸허하게 걸어간 참 신앙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의 삶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는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롬 6:6). 그리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겨 버렸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부어잡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기꺼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통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행 20:22)

기도 제목 ①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② 총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을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와 작별하고 난 후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를 경유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선교활동의 결과를 보고하고 형제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와 율법에 대해 오해를 한 교인들이 있었습니다(20~21절).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장로들은 형제와 함께 예식을 거행할 것을 바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선 율법이나 할례나 그 어떤 것이든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였기에 흔쾌히 이 제의에 응하였습니다. 실로 바울은 형제를 얻기 위해 율법 아래 있을 수도 있었고, 스스로 헬라인처럼 될 수도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전 9:20~21). 바울은 이렇게 타인들에 대하여 관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도 복음 안에서 용납하였습니다. 결코 자신의 잣대로 함부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든지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은 오히려 자신에게는 철서하고 타인들에게는 관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 대하여 사랑과 인내로 용납하고 품어 줄 때 그들 역시 차차 주님 안에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행 21:14)

기도 제목 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복음을 진하게 하소서.
② 교구와 부서별 섬기는 교역자들이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회심 경위를 상세히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스테반의 설교와 흡사한 말로써 설교의 서두를 시작합니다. 내용상 세 단락으로 구분되는 이 설교에는 바울의 출생과 성장내력(3~4절), 회심과정(6~16절),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 받게 된 경위가 밝혀져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신앙회상을 넘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설교의 가치는 남다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여파로 유대인들은 소동을 일으키고 그 결과 바울은 공회에 서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모여 있던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매우 담대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고소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러한 바울처럼 우리들도 주위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인생의 참된 구주이심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심지어 냉대와 조소가 쏟아진다고 해도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며, 인생의 참 소망이심을 전해야 합니다. “또 이시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 15:12~13).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행 22:8)

기도 제목 ①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와 25개 교구 및 23개 교회학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사람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 온 줄 알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때에 이 소동으로 예루살렘이 소란스러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천부장은 급히 군사를 보내어 바울을 잡아 심문하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시민인 줄 알고는 그의 결박을 풀어주고 공회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 때 바울은 자신에게 허락된 변호의 시간마저도 주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기꺼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맹세한 무리까지 생길 정도로 완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천부장은 바울의 신변이 위태로워지자 그를 벨릭스 총독이 있는 좀더 안전한 가이사랴로 옮겨 보냅니다.

이처럼 바울은 죽음의 위협의 순간에도 오직 복음전파만을 생각했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언 하여야 하리라...”(11절). 결국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하더라도 복음만이 증언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현재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고난이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는 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닥치는 모욕과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참 생명을 줍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고 최고의 찬사를 받아 마땅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언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행 23:35)

기도 제목 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학생들에게 복음만을 확신있게 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가이사랴의 헤롯궁에 감금된 지 닷새 후에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의 고소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다 할 죄도 없이 잡혀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로운 법정투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 태도에는 어떤 흔들림이나 원망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21절).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역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전하길 원합니다.

벨릭스는 이제 바울을 비교적 자유롭게 풀어주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바울이 더욱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손길입니다. 원래 벨릭스 총독은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진압하고 대제사장까지 살해하는 폭군이었지만 주님은 그러한 자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결국 수일 후에 벨릭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세히 듣고자 바울을 부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복음에 관심있는 척하였으나 실상은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기독교인들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26절).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오직 복음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벨릭스처럼 관심만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행 24:24)

- 기도 제목 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바울을 구금시켰던 총독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고 그의 뒤를 이어 신임 총독으로 베스도가 임명됩니다. 따라서 바울의 소송 문제도 자연스럽게 신임 총독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시금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재판정에 서야 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덮어씌운 거짓 죄목들을 빙자하여 자신을 향하여 외치는 조롱과 모욕을 또다시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임 총독 베스도도, 재판의 모든 과정도 주님의 손길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자 사람들은 바울을 다시금 고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들이 바울이 있는 가이사랴로 오도록 만드셨습니다(1~5절).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이 또 한번 밝혀졌고,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베스도와 로마 관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더 나아가 이 재판을 통하여 복음이 로마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발판을 놓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6~12절). 바울의 재판을 통하여 베스도의 갈릴리의 분봉왕 아그립바와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13~27절). 우리는 종종 바울이 당하는 어려움과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 때문에 주님께 항의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행 25:19)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에 순종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세워진 위원회의 모든 일꾼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이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바울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하였다면 이번에는 로마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자기를 변호해야 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이제까지 전하였던 증언 가운데서 가장 박력 있고 장엄한 복음을 이곳에서 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자신을 이곳에 세우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재판장에 앉아 있는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상세히 말하면서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6~18절).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19~23절). 바울은 '미쳤다' 라고 하는 베스도 앞에서도, 조롱하는 아그립바 왕 앞에서도 전혀 움츠러들거나 물러서지 않고 더욱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29절).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율법의 의가 가득했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생사와는 관계없이 오직 예수님만 전합니다. 여기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죄수 바울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행 26:23)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가 되는 은총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복음만을 전하는 나팔이 되게 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2년이 넘도록 기다리던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동안 바울이 겪은 고난을 돌이켜 보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상의 집결지인 로마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바울에게 이러한 훈련과정이 필요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의 훈련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시련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출발합니다. 이때 생명을 걸고 바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1절, 골 4:10~14).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안에서 하나가 된 진정한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동역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출항을 뒤로 미룰 것을 권면하지만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듣고 출항합니다. 물론 선장의 말을 따른 백부장의 판단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와 경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바로 주님의 음성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풍이 불어 배가 잘 나아가자 의기양양하였습니다(13절).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뿐 주님의 음성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결국 풍랑을 만나 죽음의 문턱까지 이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요 영원한 기쁨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바울을 보호하셨듯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 주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행 27:24)

기도 제목 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② 피택자 교육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종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바울과 그의 일행은 주님의 섭리로 폭풍우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멜리데섬에 상륙합니다. 주님은 그 곳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독사의 맹독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는 능력을 보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이요 구원자이심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복음에 헌신된 자녀들을 보호하심은 물론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의 보호와 능력으로 주님께 헌신된 종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1~10절).

석달 후 봄이 되자 다시금 로마로 출발한 바울은 보디올과 로마에서 복음의 형제들을 만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들은 쇠사슬을 찬 바울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가장 초라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바울을 만나기 위해 하룻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격려하고 있습니다.(11~15절) 이처럼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동역자로서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비록 부자유스러운 처지였으나, 주님은 그에게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바울의 감옥 선교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16~29절). 그러나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30~31절)은 복음전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 강한 여운을 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바울의 뒤를 이어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행 28:31)

기도 제목 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종이 되게 하소서. ②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참 회개와 부흥이 있는 성령강림주일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역예배



5월 구역교재 초점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십자가에서 흐려질 때 우리의 삶은 위선과 외식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한 교회와 가정 안에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 훈련을 통한 인위적인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으로 교회와 가정은 충만하게 됩니다. 악한 영들의 꼬임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우리 다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아와 진실로 회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참된 부흥을 소망합시다.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금요모임	본문	제목	초점
0501	마태복음 26:17~29	성만찬의 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전하자
0508	요한복음 21:15~17	예수님의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며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자
0515	열왕기하 4:1~7	신자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자
0522	요한복음 14:16~17,26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에 십자가를 붙들며 순종하자
0529	사도행전 2:41~42	오순절의 회복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참 회개와 세례, 부흥을 소망하자

1.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결론 및 적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성만찬의 참 의미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전하자

| 찬 송 |

찬송가 232장 유월절 때가 이르러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본 문 | 마태복음 26:17~29

¹⁷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¹⁸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 ²⁹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²⁹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던 마지막 유월절에 시작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해방되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입니다.

※ 유월절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보십시오(출애굽기 12장)

벧전 1:18~19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실체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위해 흠 없는 어린 양을 희생시켜야 했습니다(출 12:5).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식탁에서 마지막 유월절과 최초의 성만찬을 동시에 기념하셨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자

신자들은 떡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합니다.

마 26:26 /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이니라 하시고

※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히신 뒤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의 몸은 주님의 지상사역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주님은 피로와 허기, 시험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고통과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구약성경은 주님이 당하실 고통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사 53:5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은 극도의 수치와 고통을 겪으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의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자

신자들은 잔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마 26:27~28 / 또 □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
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
하여 흘리는 바 나의 □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새 언약의 피입니다. 해마다 죄 사함을 얻기 위해
드려졌던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는 한시적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들
이 율법 아래에서 드려져야 했던 구속의 형태였다는 점에서 볼 때, 이
모두가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
혈은 영원한 죄 사함을 허락하십니다.

※ 로마서 5:8~9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 요일 1:7~9 _____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것은 이
미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복된 소
식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복된 소망을 기억하자

신자들은 떡과 잔을 받으며 그들의 복된 소망을 기억합니다.

마 26:29 /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_____을 이제
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_____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
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전 11:26 _____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약속된 재림의 날입니다. 주
님이 오실 때 신자들은 주님의 식탁에 앉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천국에서 이 특별한 만찬을 신자
들과 함께 나눌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딤후 2:12~14 / 우리를 ☐☐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이 되게 하
려 하심이라

성만찬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십시오.

고후 6:2 _____

눅 19:10 _____

지금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그들에게 나아가십시오. 성만찬 예배를 통해 복음전도에 대한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천국을 소망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한 영혼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2과 예수님의 질문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며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자

| 찬 송 |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 본 문 | 요한복음 21:15~17

¹⁵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¹⁶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¹⁷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쪼던 중,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분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그는 가장 위대한 복음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이는 데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 예수님을 부인한 후 베드로의 삶의 변화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행 2:36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베드로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가장 위대한 복음의 증인 중 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하신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예수님을 최우선 하겠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은 목양사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 21:15 /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_____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_____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말로 그의 삶에서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일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것으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 누구든지 하나님이 받을 만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주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양사역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첫 번째, 최우선에 둘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나의 가장 우선순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갈 6:14 _____

교회의 성도들을 복음으로 돌보겠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두 번째 질문은 교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 21:16 _____

예수님의 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주님의 은총으로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행 20:28 _____

양을 돌보는 목양사역은 예수님의 보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 문화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관한 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 사도행전 20:29~32 ; 베드로전서 2:2~3, 5:2~3 ; 디모데후서 2:15 말씀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모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세 번째 질문은 아가페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 21:17 _____

목양사역과 교회의 사역은 아가페 사랑을 요구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타인을 위해 최선의 것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주는 사랑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즉, 아직 그러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 가운데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사랑입니다.

※ 아가페 사랑을 담고 있는 성경말씀(요 3:16 ; 롬 5:8 ; 갈 5:22~23)을 읽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롬 5:5 _____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무엇으로 하려고 할 때 베드로처럼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마 16:24 _____

히 10:22 _____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셨던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대답을 찾으려 고민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 하며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깨어 있게 하소서
2. 예수님을 최우선하며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가정과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3과 신자의 가정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자

| 찬 송 |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 본 문 | 열왕기하 4:1~7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빛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값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책임을 어떻게 일일이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자를 지으시고 자녀를 낳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창 3:16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되풀이 되는 일상적인 일들은 정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오늘 성경본문에는 남편을 잃고 설상가상으로 아이들마저 잃게 될 위험에 처해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 힘겨운 상황을 헤쳐 나갔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어머니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야할 지 알았습니다.

왕하 4:1 _____

이 여인은 경건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종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두 아들과 힘겨운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거나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빛의 대가로 두 아들을 요구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그녀는 지체하지 않고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십니까?

시 40:17 _____

문제해결책은 가정 안에 있었다

문제해결책이 바로 자신의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하 4:2~4 _____

엘리사는 그녀의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한 후 매우 냉철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특히 가정에 있는 것은 깨닫지 못한 채 자기에게 없는 것만 찾습니다.

※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한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발견할 때가 전환점입니다. 자신이 주님께 받은 은총을 보십시오. 우리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해답은 바로 가정에 있습니다.

※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마 6:11)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음성을 써 보십시오.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왕하 4:5~7 _____

엘리사는 그녀에게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두 아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청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있는 것을 취하셨고 그녀에게 가져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우심으로 몇 배로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 곤고한 중에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대하여 아래 본문들의 내용을 관찰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사무엘상 17장	마가복음 6장

우리의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을 가진 분이십니다. 유일한 제약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신자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가정의 형편이 좋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있습니다.

※ 다음의 가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 롯의 가정(창세기 19장)
- 아브라함의 가정(창세기 22장)
- 고넬료의 가정(사도행전 10장)
- 빌립보 감옥 간수의 가정(사도행전 16장)

비록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는 가정이 복있는 가정입니다. 신자로서 여러분은 어려움이 닥칠 때 어디로 가야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는 데 있어서는 전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되게 하소서
2. 어떤 상황속에서도 주님을 찾으며 감사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4과 보혜사 성령

| 초 점 |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에 십자가를 붙들며 순종하자

| 찬 송 |

찬송가 188장 무한하신 주 성령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 본 문 | 요한복음 14:16~17,2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요약해 보십시오.

성령은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시며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분으로 오해하는 실수를 합니다. 또 성령님을 단지 어떤 힘으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전 2:10 / 오직 하나님이 □□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 성령님에 대한 속성과 그것을 설명한 성경구절을 연결해 보십시오.

- | | |
|--------------|------------|
| 知(성령님의 지성) · | · 엡 4:30 |
| 情(성령님의 감정) · | · 고전 12:11 |
| 意(성령님의 의지) · | · 롬 8:27 |

지성, 감정, 의지는 성령님께서 인격체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 위임옥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성령님은 위로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십니다.

요 14:16 /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를 너희에게 주
사 영원토록 _____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 속에는 '충고하다, 간곡히 타이르다, 위로하다, 기운을
북돋우다, 중재하다, 격려하다'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보혜사'라는 말이 나에게 주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인간은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만이 진실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고후 1:4 /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
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시로다

보혜사 없이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천국을 향해 열려 있는 길을 걸을 수 있습
니다.

성령님은 조언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조언자가 되십니다.

요 14:26 /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_____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_____ 하리라

이 거친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인생은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여러분은 어떤 일로 인해 좌절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 인간의 조언과 성령님의 조언이 어떻게 다른지 나누어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개인교사가 되시어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십니다.

벧후 1:20~21 _____

요 16:13~15 _____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 16:8~11

성령님은 양심의 가책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 로마서 3:23, 6:23 말씀에 나타나는 우리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십니다.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다가올 두려운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히 9:27

암 4:12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쏟아내셨고,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엡 1:13 /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으로 을 받았으니

요 14:17 _____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조언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어 매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이 고심에 십자가를 붙들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성령님의 이고심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2.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5과 오순절의 회복

| 초 점 |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참 회개와 세례, 부흥을 소망하자

| 찬 송 |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찬송가 183장 빈 들에 마른 풀같이

| 본 문 | 사도행전 2:41~42

⁽⁴¹⁾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⁴²⁾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순절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음에 오는 유대인의 네 번째 명절로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바로 이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며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에 의해 지어져 갑니다.

※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령강림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 성령충만한 삶의 증거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성령강림절은 교단의 시작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신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셨습니다(행 1:8). 이 명령과 함께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지 열흘 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성령님의 역사는 회개이다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는 회심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행 2:41 _____

삼천 명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회심은 어떤 인간의 능력에 따른 결과가 아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딤후 3:5 /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_____
하셨습니다

행 2:22~24 _____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됩니다.

※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바뀌어진 나의 모습을 간증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는 세례이다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는 공적 증거인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행 2:41 /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구원은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를 통해 공개적으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세례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공적인 증거입니다.

벧전 3:21 /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_____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까지 사람들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 그들의 마음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요일 5:6 /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하는 이는 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님의 역사는 부흥이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또한 기독교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행 2:42

신자들의 구원은 단 한 번에 완성되거나, 지옥을 피하는 것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들의 구원은 매 순간 자든지 일하든지 놀든지 간에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성화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요 14:16~17

요 14:26

성령님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격려하시며, 훈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늘의 처소로 이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성령님의 능력과 임재를 회복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해지고 그분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요일 3:24 _____

딤후 3:6~7 _____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참 회개와 세례, 부흥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성령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2. 성령으로 부흥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은총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 시에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신자의 가정

⁽¹⁾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빛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²⁾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 ⁽⁶⁾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⁷⁾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열왕기하 4:1~7)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책임을 어떻게 일일이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자를 지으시고 자녀를 낳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창 3:16).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되풀이 되는 일상적인 일들은 정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오늘 성경본문에는 남편을 잃고 설상가상으로 아이들마저 잃게 될 위험에 처해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미 주어진 의무들이 이제는 갑절로 불어났고 그녀의 짐은 한층 더 버거워졌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 힘겨운 상황을 헤쳐 나갔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이 어머니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습니다. 오늘의 성경본문은 말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 이다 이제 빛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왕하 4:1). 이 여인은 경건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종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엘리사 밑에서 배웠지만 모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두 아들과 힘겨운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빛의 대가로 두 아들을 요구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그녀는 지체하지 않고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가정이 어려움에 처할 때 어디로 가야할지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때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십니까?

문제해결책은 가정 안에 있었다

이 어머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자신의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성경본문은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왕하 4:2~4). 엘리사는 그녀의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한 후 매우 냉철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특히 가정에 있는 것은 깨닫지 못한 채 자기에게 없는 것만 찾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너무나 자주 사람들이 자신에게 없는 것, 예를 들어 최신 TV, 컴퓨터, 휴대폰 등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로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정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발견할 때가 전환점입니다. 불평하는 대신 자신이 받은 복을 세어본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언제쯤이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해답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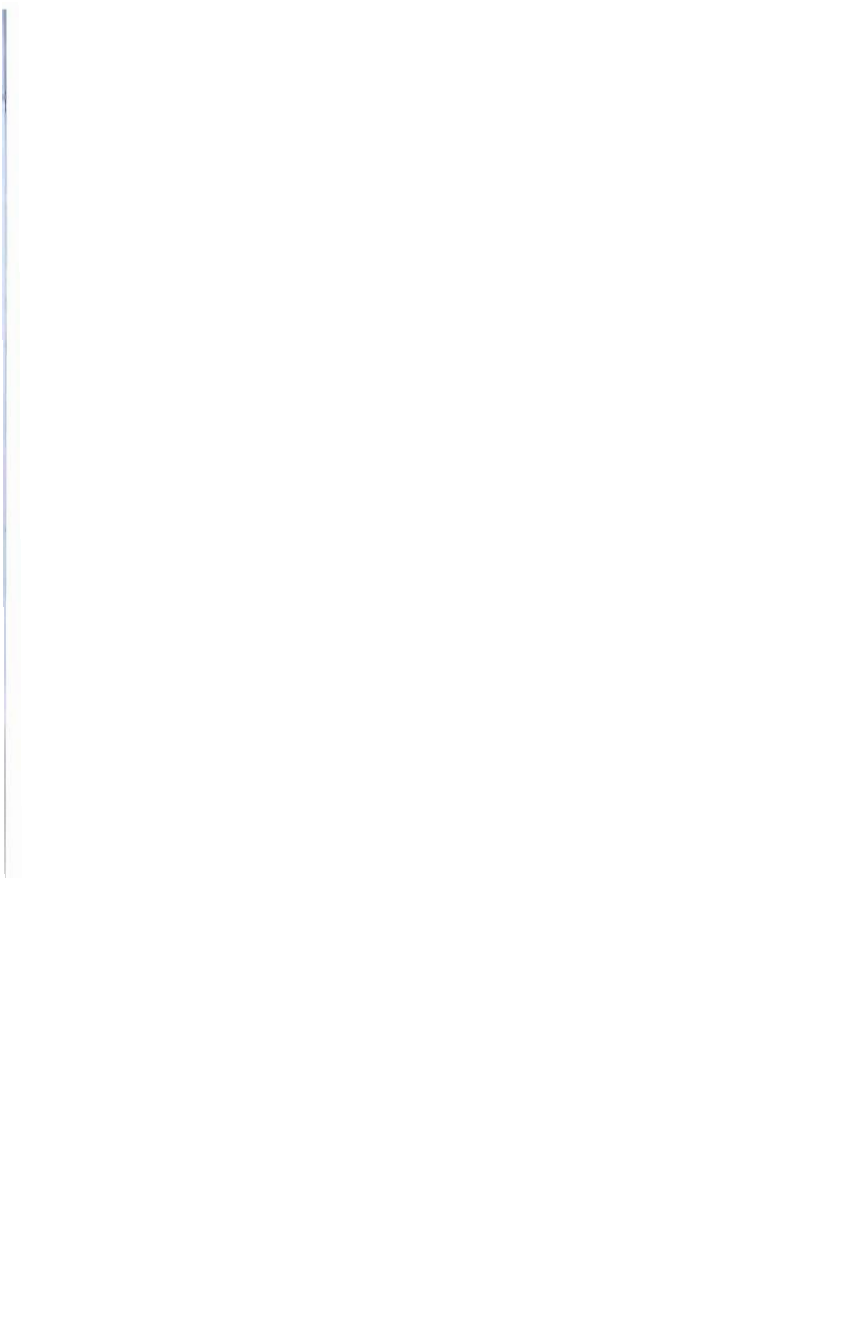
6:11).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백만장자가 되는 것도 부족해서 억만장자가 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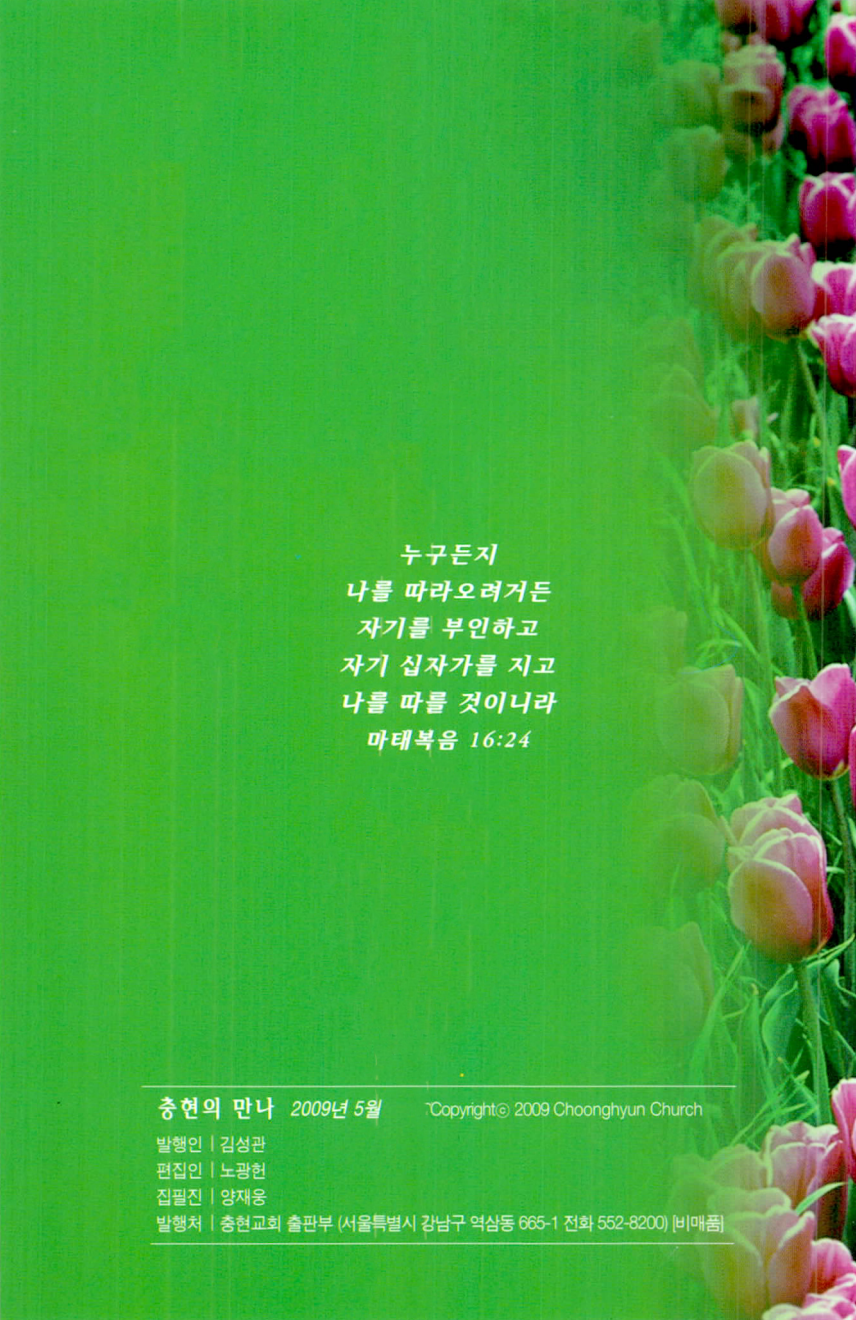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었다

이 어머니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허락만 한다면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성경본문은 말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값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왕하 4:5~7). 만약 이 어머니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문을 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두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그릇을 빌렸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엘리사는 그녀에게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두 아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청종했습니다. 문을 닫는 그 순간 그들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하나님은 그녀에게 있는 것을 취하셨고 그녀에게 가져온 모든 그릇을 채우심으로 몇 배로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붓고, 또 붓고, 또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한 소년의 점심 도시락이었던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로 오천 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그분은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셨을 뿐 아니라 다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을 가진 분이십니다. 유일한 제약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생각,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작고 부정적입니다. 우리의 표현도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은 복 받은 것입니다. 신자로서 여러분은 어려움이 닥칠 때 어디로 가야할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는 데 있어서 전혀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09년 5월

Copyright© 2009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